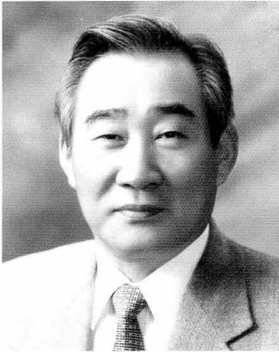


## 1999년을 보내는 마음



정장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올 해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점 때문인지 1999년을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기대감으로 더 설렌다.

지난 2년간 우리는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해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다.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이로 인한 대량실업사태,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국가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였었다. 그러나 수출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됐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시장이 되살아났다.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예전의 경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주식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경기회복에 탄력이 붙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회복세가 뚜렷해 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벤처창업 활성화 등 첨단정보통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신규투자 유도와 일자리 창출 정책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계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도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보통신제품의 표준·기술기준 인증체계의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의 표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 수요 조사와 바람직한 국내외 표준 시험·인증체계 방향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터넷 인증시험」 시행, 멀티미디어 산업진흥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올해에 6회째를 맞은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개최,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 실시,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창업 장려와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정부와 업계의 상호간 대화의 장으로서 「정보통신포럼」을 신설, 개최하였고, 국제적인 교류에도 눈을 돌려 지난 10월에 한·스웨덴 정보통신 발전 및 사업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간 정보통신사업 기본계획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Y2K(2000년도 인식문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 산하 「Y2K 인증센터」를 설립해서 Y2K문제 점검과 인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제7회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올 한해의 정보통신산업 결산과 내년도 산업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한해의 결산을 통해 그 이듬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전망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에도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현황과 성장 규모 등을 살펴보고 2000년도 시장전망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 협회는 새 천년을 맞는 새해에도 계속해서 국가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건강한 정보사회축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